

주체 존대 선어말어미 ‘-(으) 시-’ 의 분포 변화에 대하여 : 생성 문법적 접근

심재홍
(The University of Chicago, PhD Student)

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2025년 겨울학술대회
2025년 12월 6일



연구 목적 및 핵심 주장

연구 목적

- 중세 한국어와 현대 한국어 주체 존대 선어말어미 ‘-(으) 시-’의 분포 양상을 대조
- 역사적 변화 과정의 원인을 생성 문법의 관점에서 설명

핵심 주장

- ‘-(으) 시-’의 분포 변화는 시제 형태소의 문법화에 따른 ‘-더-’의 의미 변화에 따른 결과
- 언어 습득에서 보다 단순한 구조와 체계에 대한 선호 (Roberts and Roussou 1999; Roberts 2022)
- 중세한국어에서 현대한국어로 이행하며 나타난 변화는 언어 보편성의 관점에서 예측되는 변화

Outline

- 1 중세한국어 선어말어미 ‘-(으) 시-’ 의 분포
- 2 ‘-더-’ 의 의미와 통사 구조 내 위치
- 3 중세 한국어에서 현대 한국어로: 공시적 변이의 발생과 통시적 변화
- 4 변화의 원리: 단순한 체계에 대한 선호
- 5 결론

중세 한국어의 주체 존대 선어말 어미 ‘-(으) 시-’

기능: 문장의 주체를 존대함.

- (1) 오직 부테 사 能히 아루시 니

(法華經諺解 4:63a)

분포: 선어말어미 ‘-더-’ 와 조합

- (2) 가. 그 썩 王 이 수羊 모도아 宮內예 두샤 … 太子를 즐기
시게 흐더시 니

(釋譜詳節 3:6b)

- 나. 太子 | 사 그르치시더 라

(釋譜詳節 3:10b)

선행 연구

- **최동주 (1988)**: 비완료상 ‘-더-’의 의미 변화에 따른 결과
- **최동주 (2015)**: 15 세기 이전 ‘-더-:-거-’ 체계가 무너진 변화를 반영
- **안병희 · 이광호 (1990)**: ‘-거/어-, -더-’의 기능 약화 및 ‘-느-’ 와의 서열 불일치 해소를 위한 도치
- **김영욱 (1995)**: 시제를 담당했던 ‘-더-’ 가 양태 기능을 담당.
- **이승욱 (1973)**: ‘-엇-’의 형성으로 ‘-더-’의 기능이 변화하여 나타난 결과

연구사는 박부자 (2018) 를 참조할 수 있음.

Outline

- 1 중세한국어 선어말어미 ‘-(으) 시-’의 분포
- 2 ‘-더-’의 의미와 통사 구조 내 위치
- 3 중세 한국어에서 현대 한국어로: 공시적 변이의 발생과 통시적 변화
- 4 변화의 원리: 단순한 체계에 대한 선호
- 5 결론

중세한국어 ‘-더’의 의미

과거 시제적 의미를 인정하는 가운데 크게 두 가지 입장

- ① 회상 의미를 담는다는 입장 (안병희 1967; 이승욱 1970, 1973;
허웅 1975; 고영근 1988; 안병희 · 이광호 1990; 이기문 1998;
구본관 · 박재연 · 이선웅 · 이진호 2016)
- ② 회상 의미를 담는다고 보지 않는 입장 (이승녕 1981; 이지영
1999; 최동주 2015)

(3) 太子 | 널오더 내 룡담^하다 라

(釋譜詳節 6:24b)

중세한국어 ‘-더’의 의미

과거 시제적 의미를 인정하는 가운데 크게 두 가지 입장

- ① 회상 의미를 담는다는 입장 (안병희 1967; 이승욱 1970, 1973; 허웅 1975; 고영근 1988; 안병희 · 이광호 1990; 이기문 1998; 구본관 · 박재연 · 이선웅 · 이진호 2016)
- ② 회상 의미를 담는다고 보지 않는 입장 (이승녕 1981; 이지영 1999; 최동주 2015)

(4) 太子 | 낄오더 내 룡담^하다 라 (釋譜詳節 6:24b)

- 본 연구에서는 15 세기 중세한국어의 ‘-더’를 상 표지로 보고자 함.

| 구분 | | 과거 | 현재 | 미래 |
|---------|------|----|----|----|
| [-상태성] | 완료상 | Ø | 누 | 리 |
| | 비완료상 | 더 | | |
| [+ 상태성] | | 더 | Ø | 리 |

15 세기 국어의 시상체계 (최동주 2015:127)

현대한국어의 ‘-더-’: 증거성 표지

- ‘-더-’는 화자가 표현하는 사건에 대해 감각으로 습득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어색함 (Song 2020).
- ‘-더-’ 와 1 인칭 주어 사이의 결합 제약
(5) 그/네/* 내가 학교에 가더라. (Song 2020:416-417)
- ‘-더-’가 인식 양태여도 본 연구의 맥락에서는 큰 차이는 없음.

형태소 배열과 의미의 상관 관계

- 굴절/활용 형태 속에서 형태소는 표현하는 의미에 따라 다른 위치를 차지하는 경향이 있음.
- 형태소의 배열은 임의적이지 않으며 일정한 배열 원리를 따르고 있음.

(6) 잡 - 히 - 시 - 었 - 겠 - 습 - 느 - 이 - 까
어근 - 파생접사 - 존경 - 시제 - 추정 - 겸양 - 視點 - 공손 - 의문
(최동주 2015)

형태소 배열과 의미의 상관 관계

- 굴절/활용 형태 속에서 형태소는 표현하는 의미에 따라 다른 위치를 차지하는 경향이 있음.
- 형태소의 배열은 임의적이지 않으며 일정한 배열 원리를 따르고 있음.

(8) 잡 - 히 - 시 - 었 - 겠 - 습 - 느 - 이 - 까
어근 - 파생접사 - 존경 - 시제 - 추정 - 겸양 - 視點 - 공손 - 의문
(최동주 2015)

(9) 거울 원리 (Baker 1985)

Morphological derivations must directly reflect syntactic derivations.

- 하나의 형태소가 통시태 속에서 보여주는 분포의 변화는 그 형태소의 의미기능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볼 가능성.

절 기능 범주 구조에 나타나는 보편 위계 (Cinque 1999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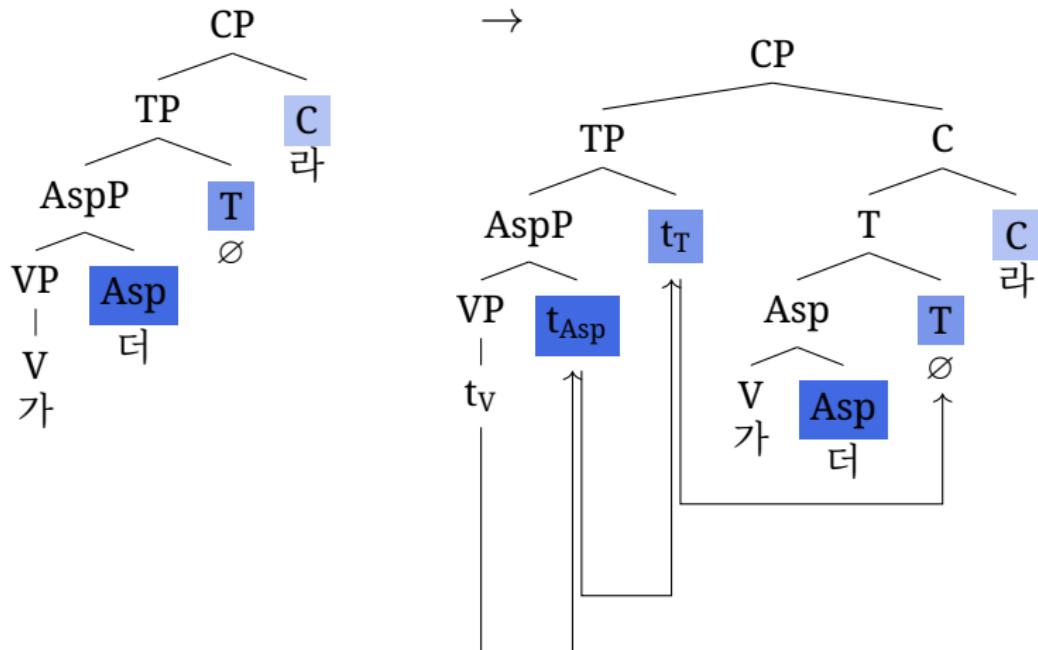
(10) Mood_{speech act} > Mood_{evaluative} > Mood_{evidential} >
 Mod_{epistemic} > T(Past) > T(Future) > Mood_{irrealis} >
 Mod_{necessity} > Mod_{possibility} > Asp_{habitual} > Asp_{repetitive(I)}
 > Asp_{frequentative(I)} > Mod_{volitional} > Asp_{celerative(I)} >
 T(Anterior) > Asp_{terminative} > Asp_{continuative} >
 Asp_{perfect} > Asp_{retrospective} > Asp_{proximative} > Asp_{durative} >
 Asp_{generic/progressive} > Asp_{prospective} > Asp_{SgCompletive(I)} >
 Asp_{PlCompletive} > Voice > Asp_{celerative(II)} > Asp_{repetitive(II)}
 > Asp_{frequentative(II)} > Asp_{SgCompletive(II)}

- ‘-더-’는 중세한국어와 현대한국어에서 각각 Asp 와 Mod / Mood 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.

통사 구조 내 ‘-더-’의 위치

중세 한국어: 가- 더 - 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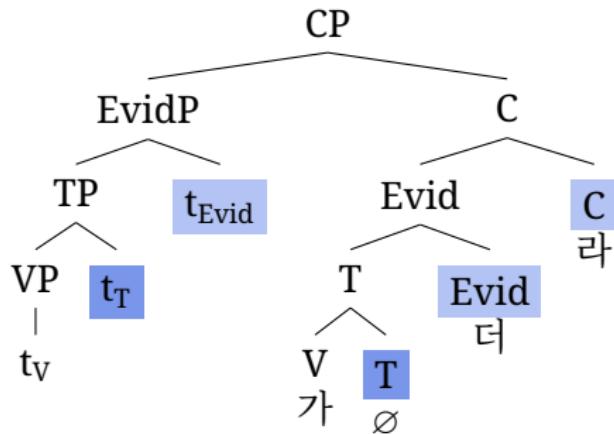
(11)



통사 구조 내 ‘-더-’의 위치

현대 한국어: 가- 더 - 라

(12)



Outline

- 1 중세한국어 선어말어미 ‘-(으) 시-’의 분포
- 2 ‘-더-’의 의미와 통사 구조 내 위치
- 3 중세 한국어에서 현대 한국어로: 공시적 변이의 발생과 통시적 변화
- 4 변화의 원리: 단순한 체계에 대한 선호
- 5 결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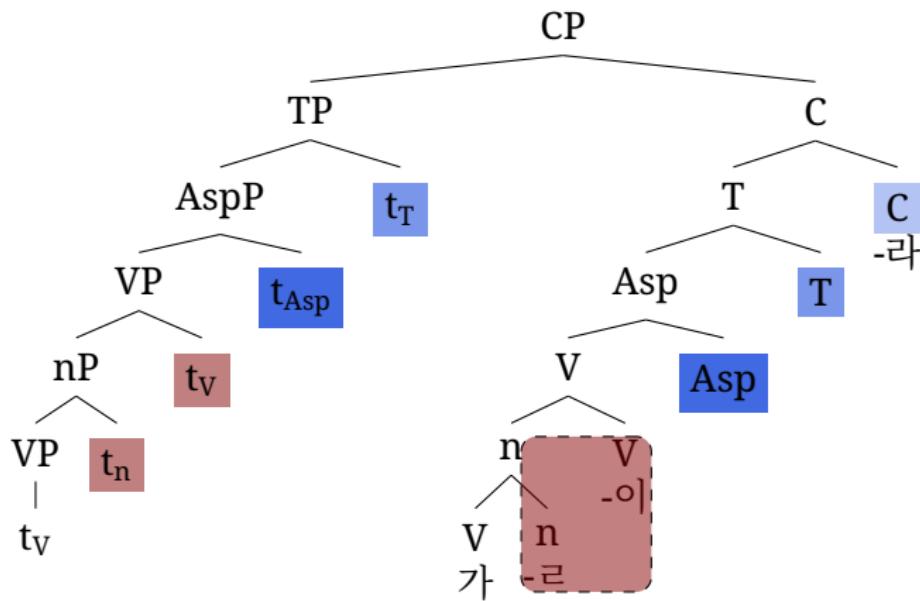
시제 형태소 문법화에 따른 변이의 발생

‘-더-’가 술어 형태에서 오른쪽 주변부에 위치하게 된 원인: 시제형태소의 문법화

- 미래 시제 ‘-(으) 리-’: 기원적으로 동명사 어미 ‘-ㄹ’과 계사의 조합으로부터 유래 (이기문 1998) → -으리러-, -으리어-
- ‘-어 잇/이시-’와 ‘-엣/에시-의’ 공존: 15 세기에 이미 ‘-어 잇-’이 ‘-엣-’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보임.
- 두 구성 모두 기원이 되는 통사적 구성에서 선접 요소가 아닌 후접 요소에만 ‘-더-’가 결합하는 제약 존재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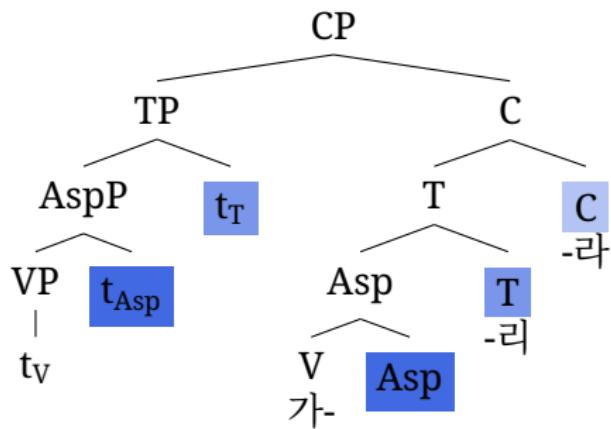
‘-으리’의 기원과 ‘-더-’의 재분석

(13) 15 세기 이전: 가- **리** - **라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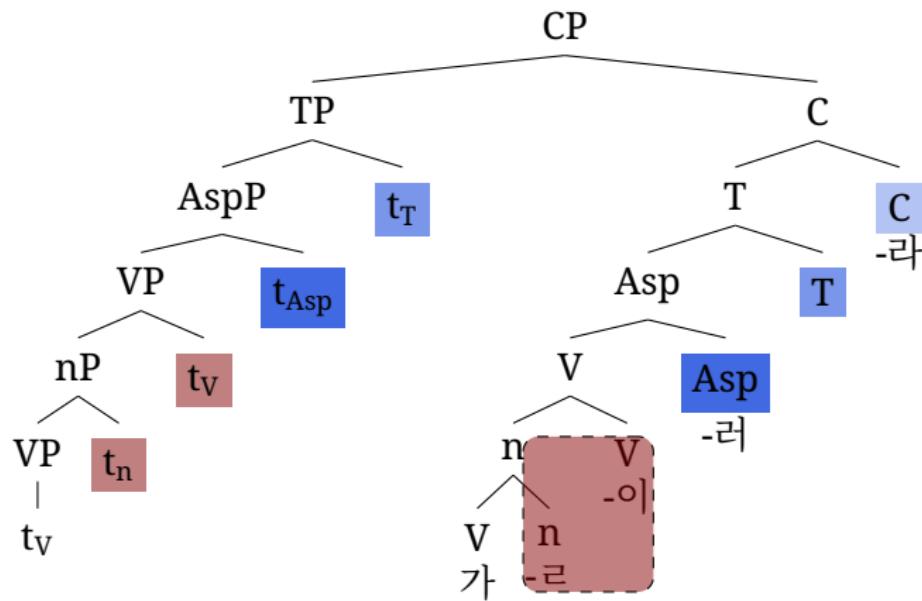
‘-으리’의 기원과 ‘-더-’의 재분석

(14) 15 세기: 가-리-라



‘-으리’의 기원과 ‘-더’의 재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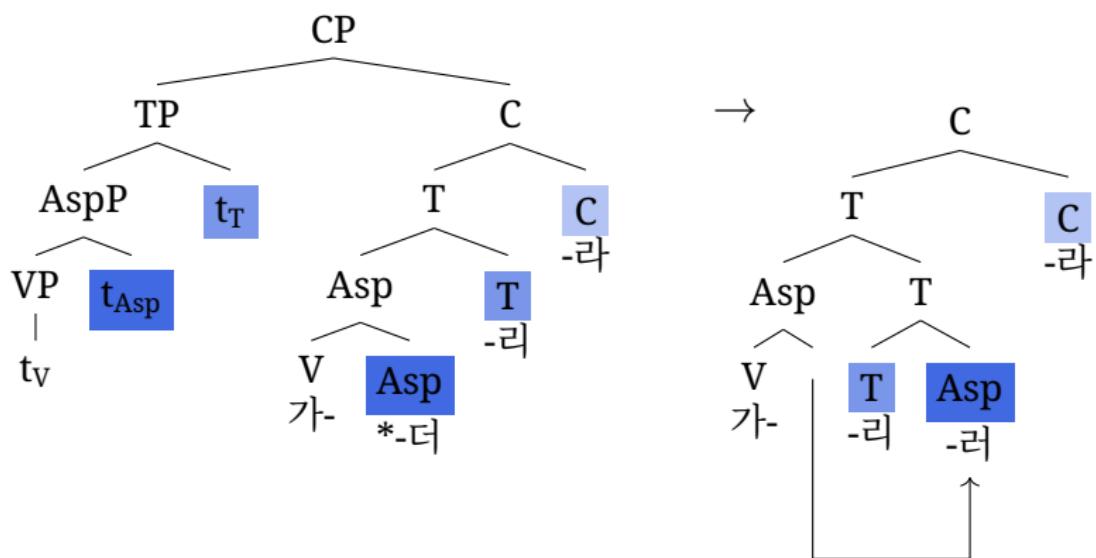
(15) 15 세기 이전: 가- **리**- **러**- **라**



‘-으리-’의 기원과 ‘-더-’의 재분석

- ‘-(으) 리-’의 문법화로 통사 구조와 활용 형태 사이에 괴리 발생. → ‘-더-’가 TP 보다 상위의 요소로 분석될 환경 발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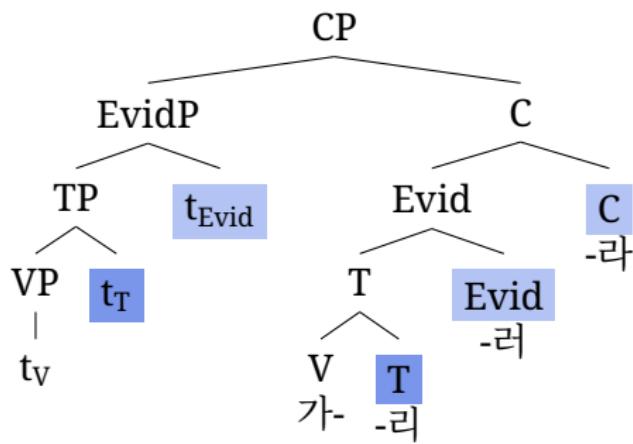
(16) 15 세기: 가-리-러-라



‘-으리’의 기원과 ‘-더-’의 재분석

- 15 세기 이후 ‘-더-’가 TP 상위의 요소로 재분석되면서 통사 구조와 활용 형태 사이의 괴리가 해소.

(17) 15 세기 이후: 가- 리 - 러 - 라



‘-엣-’ 형태의 출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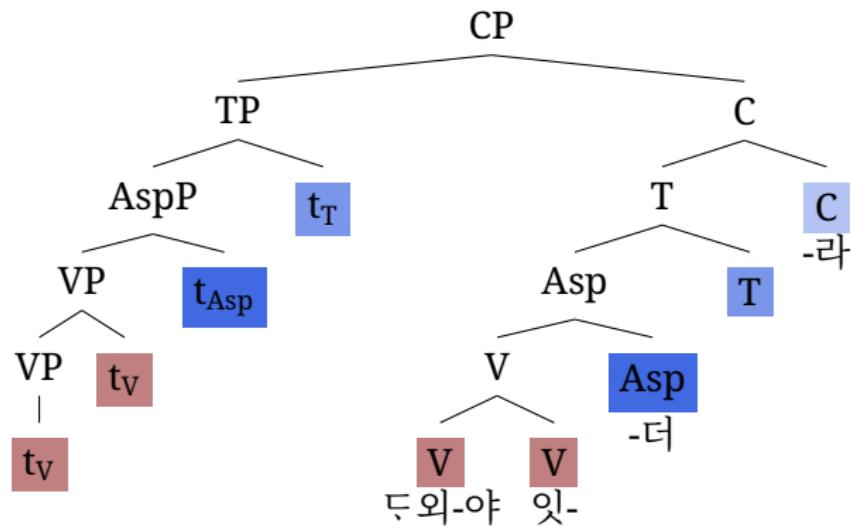
- 현대 한국어의 과거 선어말 어미 ‘-었-’은 중세 한국어의 ‘-어 잇/이시-’ 구성으로부터 비롯한 것.
- ‘-어 잇/이시-’ > ‘-엣/에시-’ > ‘-엇/어시-’의 변화 과정을 겪은 것으로 보임 (최동주 2015)
- 15 세기에는 ‘-어 잇/이시-’와 ‘-엣/에시-’가 문증됨.

‘-엣-’ 형태의 출현

- 15 세기 ‘-어 잇/이시-’ 와 ‘-엣/에시-’ 에 어떠한 의미적 차이가 있었는지에 있어서는 논쟁이 있음.
- 그러나 ‘-어 잇/이시-’ 가 궁극적으로 ‘-었-’ 으로 문법화가 되었고 15 세기 이후 시기에 기원적인 ‘-어 잇/이시-’ 형태와 의미적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!
- 결국 이 환경 역시 ‘-더-’ 가 재분석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제공했을 것

‘-엣-’ 형태의 출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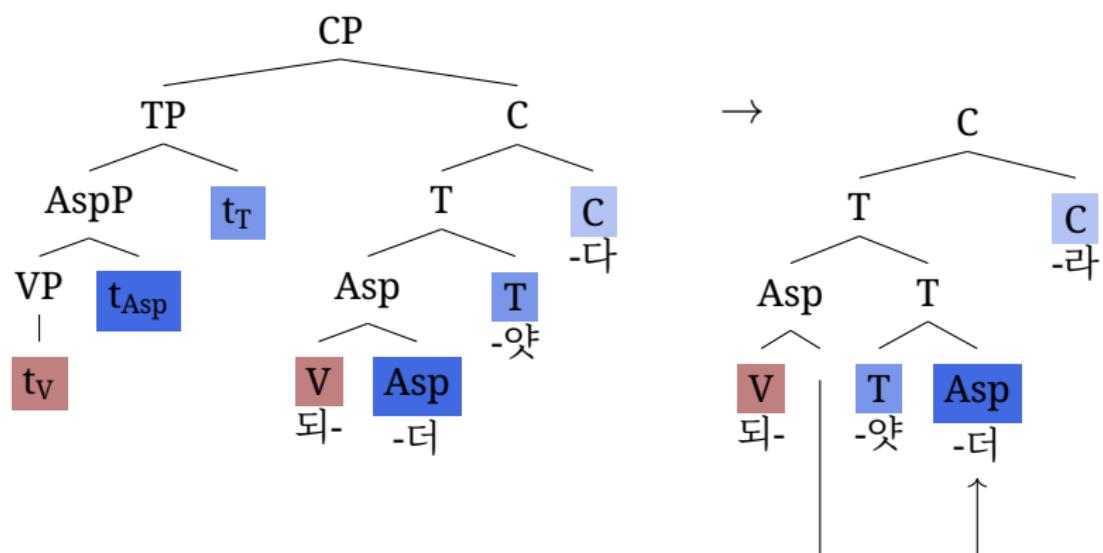
(18) 15 세기: 드와-야잇-더-라 ~ 드와-앳-더-라



‘-엇-’의 문법화

- '-엇-'의 문법화로 통사 구조와 활용 형태 사이에 괴리 발생. → '-더-'가 TP 보다 상위의 요소로 분석될 환경 발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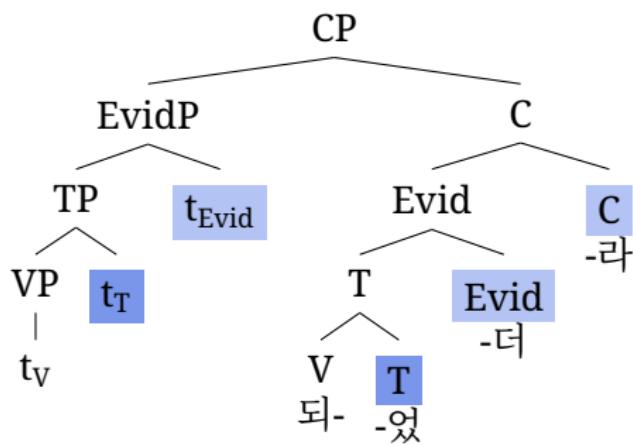
(19) 16 세기: 되- 얹- 더- 라



'-었-'의 문법화

- 16 세기 이후 '-더-'가 TP 상위의 요소로 재분석되면서 통사 구조와 활용 형태 사이의 괴리가 해소.

(20) 현대: 되- **었** - 더 - 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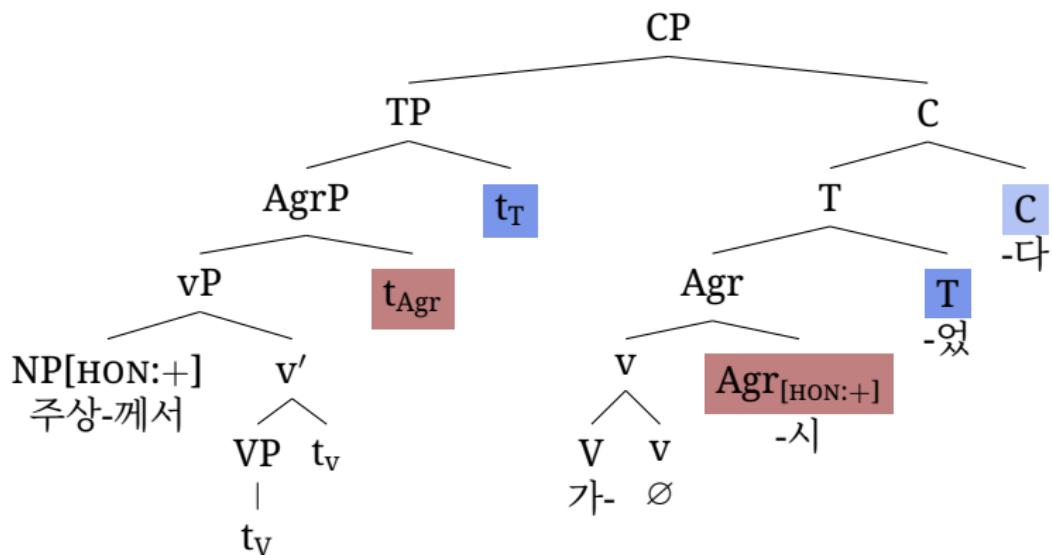


통사 구조 내 주체 존대 ‘-(으) 시-’ 의 실현 과정

- 화용 맥락 속에서 화자의 의도에 의해 주어 명사구에 존대 자질이 부여된다.
- 일치 소구 (AgrP) 의 핵어는 주어 명사구의 존대 자질 [HON:] 이 + 로 명세될 때 이를 ‘-(으) 시-’로 실현함.

통사 구조 내 주체 존대 ‘-(으) 시-’의 실현 과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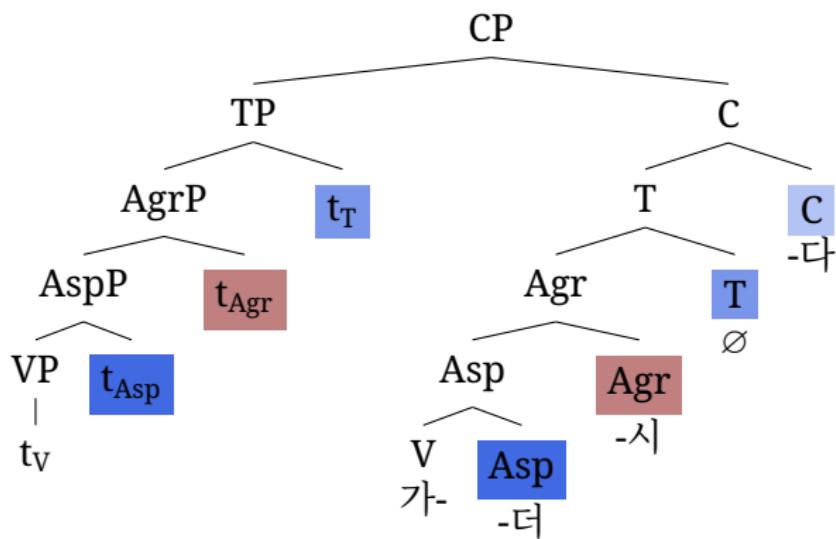
(21) 주상-께서 가- 시 - 었 - 다 .



‘-더-시-’ > ‘-시-더-’의 변화

- 15 세기 한국어: 복합 핵어 내 주체 존대 어미가 후기 통사부에서 수의적으로 하강함 (: 보충법 어간 ‘겨시-’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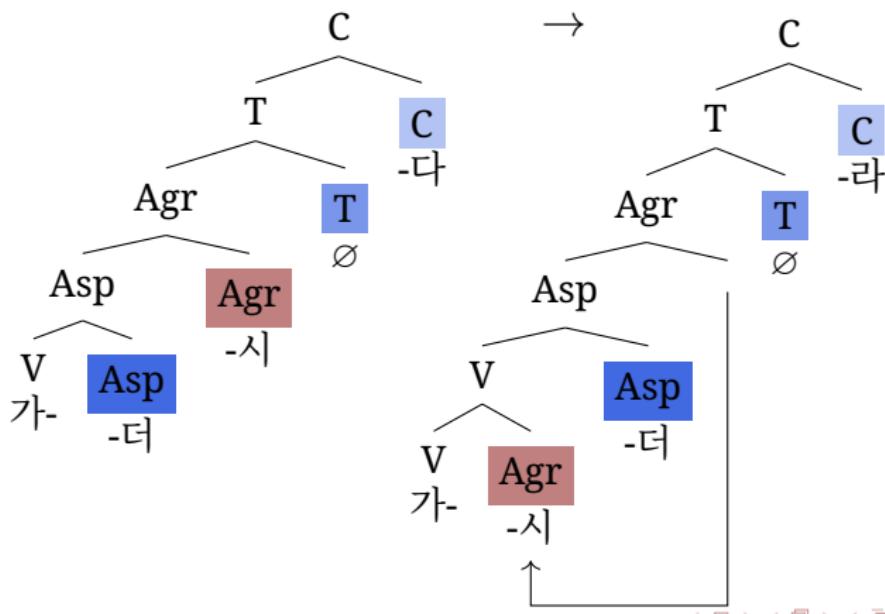
(22) 가-더-시-다 ~가-시-더-라



‘-더-시-’ > ‘-시-더-’의 변화

- 15 세기 한국어: 복합 핵어 내 주체 존대 어미가 후기 통사부에서 수의적으로 하강함 (: 보충법 어간 ‘겨시-’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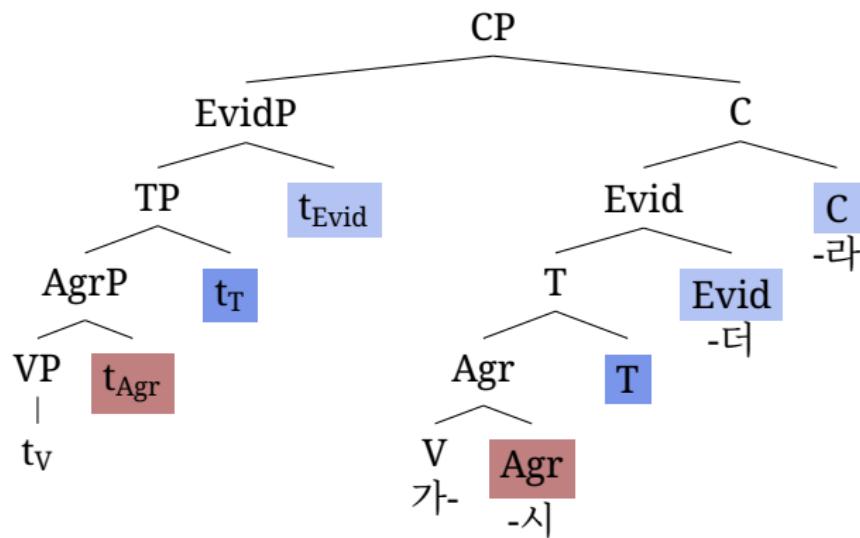
(23) 가-더-시-다 ~가-시-더-라



‘-더-시-’ > ‘-시-더-’ 의 변화

- 15 세기 이후: ‘-더-’의 재분석에 따라 주체 존대 어미 하강 환경이 사라짐.

(24) 가- 시 - 더 - 라



Outline

- 1 중세한국어 선어말어미 ‘-(으) 시-’의 분포
- 2 ‘-더-’의 의미와 통사 구조 내 위치
- 3 중세 한국어에서 현대 한국어로: 공시적 변이의 발생과 통시적 변화
- 4 변화의 원리: 단순한 체계에 대한 선호
- 5 결론

중간 요약

1 ‘-더-’의 위치

- 중세 한국어: AspP
- 현대 한국어: EvidP

2 중세 한국어 시제 형태소의 문법화

- ‘-더-’가 원래 예상되는 위치보다 활용 형태에서 우측 주변부에 위치하는 환경 만들어짐.
- AspP에서 생성된 ‘-더-’를 활용 형태 우측 주변부로 옮기기 위한 후기 통사 규칙 필요

3 ‘-더-’의 재분석: Asp → Evid

- ‘-더-’가 통사 구조 내 상위 위치에서 기저 생성됨.
- 별도의 후기 통사 규칙 없이 활용 형태 도출 가능

4 주체 존대 ‘-(으) 시-’의 위치

- 중세 한국어: ‘-더시-’를 기본으로 하는 가운데 주체 존대 어미 하강 규칙에 의해 ‘-시더-’ 실현
- 현대 한국어: ‘-더-’가 이미 통사 구조 내 상위에 있어 주체 존대 어미 하강 규칙 적용 환경이 중화됨.

- 왜 문법화된 시제 형태소와 공기하는 환경에서 ‘-더-’ 가 본래의 상적 의미에 부합하는 위치로 돌아오지 않은 것인가?
- 다시 말해 시제 형태소의 문법화가 완료된 이후 왜 ‘-더-’ 가 자기 자리로 돌아와 ‘가- 더 -리 -라’ 와 같은 활용 형태를 만들어 내지 못 한 것인가?
- ‘-더-’ 가 Asp 보다 더 상위에 있는 요소라는 증거가 이미 더 많았음.

15 세기 어린이의 입장

‘-더-’의 위치를 습득할 때 노출되는 입력

- 어간 및 객체 존대 바로 우측 자리: 가- 더 -... → Asp 와 Evid 모두와 가능
- 미래 시제 우측: 가- 리 - 러 -... → 후기 통사 규칙이 없이는 Evid
- 주체 존대 ‘-(으) 시-’의 좌측 또는 우측: 가-더-시... / 가-시-더-...
→ 각각 Asp 와 T 보다 높은 핵어로 습득될 가능성 제공
 - 보충 어간의 경우 Asp 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지 않음:
겨-시-더-..., * 겨-더-시-...

이미 이전의 상 표지 ‘-거-’ 와의 대립이 약해진 15 세기에 (최동주 2015) 형태적 증거로 ‘-더-’의 위치가 상 표지라는 것을 습득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.

통사 구조 내 역사적 위치 변화의 원리

어떤 기능 범주의 통사 구조 내 역사적 위치 변화는 통사 구조 내 낮은 위치에서 높은 위치로 이행하며 습득되는 구조는 보다 복잡한 쪽에서 단순한 쪽으로 이행한다 (Roberts and Roussou 1999; Roberts 2022).

- 상 표지 → 증거성 표지: 역사적 위치 변화 원리에 부합
- 15 세기 한국어 체계가 상충하는 입력을 조화시키기 위한 복잡한 체계인데 반해 현대 한국어 체계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체계
- ‘-더-’ 가 상 표지일 경우 시제 형태소 문법화에 따른 입력을 습득하기 위한 추가적인 후기 통사 규칙이 필요한 복잡한 체계
- ‘-더-’ 가 증거성 표지가 될 경우 ‘-더-’ 의 위치는 기저 형태를 투명하게 반영하게 됨.
- Asp로서 마지막 증거가 되던 ‘-시더-’ 는 전체 체계의 단순성을 위해 차츰 소실되었을 것.

중세 한국어 vs. 현대 한국어

중세 한국어

- (25) 미래(과거) 시제-비완료상 도치 규칙

통사 구조 → V- 더 - 리 - C → V- 리 - 러 - C

- (26) 주체 존대 하강 규칙

통사 구조 → V- 더 - 시 - C → V- 더 - 시 - C

↓
주체 존대 하강 규칙

↓
V- 시 - 더 - C

현대 한국어

- (27) 통사 구조 → V- 었 - 더 - C

- (28) 통사 구조 → V- 시 - 더 - C

Outline

- 1 중세한국어 선어말어미 ‘-(으) 시-’의 분포
- 2 ‘-더-’의 의미와 통사 구조 내 위치
- 3 중세 한국어에서 현대 한국어로: 공시적 변이의 발생과 통시적 변화
- 4 변화의 원리: 단순한 체계에 대한 선호
- 5 결론

요약

- 15 세기 한국어에서 주체 존대 ‘-(으) 시-’ 와 ‘-더-’ 의 상대적 분포를 생성 문법 차원에서 설명하려 시도
- 현대 한국어에 나타나지 않는 ‘-더-시-’ 는 중세 한국어의 ‘-더-’ 가 상 표지였다는 데서 기인.
- 시제 형태소의 문법화로 만들어진 ‘-더-’ 의 새로운 분포는 ‘-더-’ 가 TP 보다 상위에서 기저 생성되는 것으로 재분석될 환경을 제공함.
- 단순한 체계에 대한 언어 습득자들의 선호라는 원리에 의해 복잡한 중세 한국어 체계는 현대 한국어 체계로 이행하게 됨.

향후 연구 방향

한계:

- 15 세기에 객체 존대 ‘-습-’이 공기할 때 왜 ‘-(으) 시-’가 하강하지 않는지 설명하지 못 함.
 - ‘습-’로부터 문법화한 ‘-습-’의 기원 (고광모 2013, 김태우 2018)

(29) 予는 내 흐습시 논 뜨디시니라 (世宗御製訓民正音 2b)

- 선어말어미 ‘-오/우-’를 고려하지 않은 분석

향후 연구 방향

형태론 차원

- 16 세기부터 현대 한국어로 이행하는 시기에 대한 더 자세한 연구
 - 한글 창제 이전 차자 표기 자료에 나타난 관련 현상 고찰
- 시제 형태소의 재분석 관련
- 중세 한국어와 현대 한국어에서 ‘-더-’가 각각 담당하던 기능이 양 변이형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더 자세히 이해할 필요 있음.

감사합니다!

고광모 (2013), “중세 국어의 선어말어미 ‘-습-’ 의 발달에 대하여, 「언어학」 65, 39-59.

고영근 (1981/1988), 「중세국어의 시상과 서법」, 탑출판사.

구분관 . 박재연 . 이선웅 . 이진호 (2016), 「한국어문법총론 II」, 집
문당.

김영욱 (1995), 「문법형태의 역사적 연구」, 박이정.

김태우 (2018), “-습-의 기능 변화에 대한 연구”, 서울대학교 국어국
문학과 박사학위 논문.

박부자 (2018), “시상형태 -더-의 쟁점과 전망”, 「국어사연구」
(27), 53-79.

안병희 (1967), “한국어발달사 (중): 문법사”, 「한국문화사대계 V:
언어 . 문학사」,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출판부, 165-261.

안병희 . 이광호 (1990), 「중세국어문법론」, 학연사.

이기문 (1998), 「국어사개설」, 태학사.

이승녕 (1981), 「중세국어문법: 15 세기어를 주로 하여」, 을유문화사.

이승욱 (1970), “과거시제에 대하여: 15 세기의 「-더」를 중심으로, 「국어국문학」 49-50, 211-222.

이승욱 (1973), 「국어문법체계의 사적연구」, 일조각.

이지영 (1999), “선어말어미 ‘-더-’ 의 통시적 연구”,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 논문.

최동주 (1988), “15 세기 국어의 안맞음씨끝 -더-에 관한 연구”,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석사학위 논문.

최동주 (2015), 「국어 시상체계의 통시적 변화」, 태학사.

허웅 (1975), 「우리옛말본: 형태론」, 샘문화사.

Baker, Mark (1985), The Mirror Principle and Morphosyntactic Explanation, *Linguistic Inquiry* 16(3), 373-415.

Cinque, Guglielmo (1999), *Adverbs and Functional Heads: A Cross-Linguistic Perspective*, Oxford: Oxford University Press.

Roberts, Ian (2022), *Diachronic Syntax* (2 ed), *Oxford Textbooks in Linguistics*, Oxford: Oxford University Press.

Roberts, Ian & Anna Roussou (1999), A Formal Approach to “Grammaticalization”, *Linguistics* 37(6), 1011-1041.

Song, Jaemog (2020), Evidentiality in Korean, in Chungmin Lee & Jinho Park (eds.), *Evidentials and Modals*, Leiden/Boston, MA: Brill, 412-444.